

鎮安 佐浦里遺蹟 收拾 櫛文土器

金大聖 (全北文化財研究院)

I

금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진안~관촌간 도로포장공사지점으로 임실군 관촌면, 진안군 성수면·마령면을 잇는 기존의 지방도 708번 도로를 북쪽으로 우회하여 섬진강 지류를 따라 개설되는 도로이다.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鎮安 聖壽面 佐浦里 봉작마을 앞 도로공사 지역내의 논 경작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산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굴조사 당시에 경지정리로 인하여 상면의 일부가 삭토되었지만 현 지표하 10~20cm에서 유물이 포함된 암갈색 모래층이 확인되었다. 시굴조사에서는 방형 집자리로 추정되는 방형유구의 윤곽이 조사되었고 그 외 탐색구덩이 일부지역에서도 유구선으로 추정되는 선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많은 석기류와 토기류가 구덩이 굴착과정에서 노출되었고 지표상에서도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약 5,540㎡의 면적을 2001년 12월 1일~2001년 12월 28일(1차조사)과 2002년 3월 4일~2002년 6월 14일(2차조사)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먼저 진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안천면 승금리·안자동, 상전면 용평리, 정천면 모정리의 갈머리·진그늘·농산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은 용평리를 제외하면 모두 하천변의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신석기 중기에서 말기에 걸친 빗살무늬토기와 굴지구·갈판 등의 석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영남서부 내륙지역과 금강 중·하류지역과의 문화적 교류상을 엿볼 수 있